

석사학위논문

결손가정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허 철 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송 미 영

2005 년 8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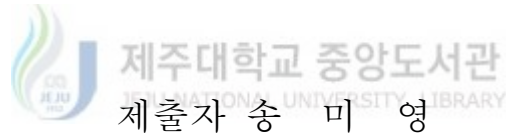
결손가정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허 철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송미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5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 국문초록 >

결손가정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송 미 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허 철 수

본 연구의 목적은 결손가정의 유형과 아동의 성별, 학년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차이를 연구하여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 아울러 결손가정 아동이 가정환경으로 인해 비행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것을 예방하고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개인 상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손유형(편부, 편모, 조부모가정)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결손이유(별거·이혼, 사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넷째,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연구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제주지역 결손가정(모자, 부자, 조부모가정)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172명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로는 자아존중감 검사와 스트레스 검사지, 그리고 개인별 배경(개인의 특성, 결손 유형, 결손이유)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로는 윤수일(1998)이 한국의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문항을 수정 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일반자아, 사회자아, 가정 자아, 학업자아의 4개 하위영역을 측정하였다. 스트레스 측정도구로는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지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미현, 유안진(1995)의 아동의 스트레스 척도에 관한 질문지를 제작성하

* 본 논문은 200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여 사용한 백경애(1997)의 척도를 참고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 부모영역, 가정환경영역, 친구영역, 학업영역, 교사 및 학교영역의 5개 하위영역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PC WIN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개인적인 변인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p<.01$ 과 $p<.05$ 수준에서 t-test나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 결혼이유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과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은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검증에서 학업자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조부모 아동의 평균(3.82), 편모가정의 아동의 평균(3.39)와 편부가정의 아동의 평균(3.34)보다 유의하게 높다. 스트레스 하위영역에서 부모, 가정, 교사 및 학교영역에서 조부모가정 아동들이 스트레스가 높다. 조부모 가정은 부모의 결혼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동 양육에 세심한 배려를 해줌으로써 아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서 오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아동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부모의 결혼으로 인한 외부환경의 다양한 자극에 영향을 받아 아동들의 스트레스가 높다.

둘째, 결혼이유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사별이 별거·이혼보다 높다.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간의 불화와 별거나 이혼 후 생활 장면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아동에게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결혼가정 아동의 형제수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형제수가 2명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는 가정영역, 친구영역, 교사 및 학교영역에서 형제수가 2명인 경우가 가장 낮다.

결혼가정 환경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 비슷한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한 양육부모의 양육태도와 친척이나 사회의 도움을 통하여 사회환경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보충 되도록 꾸준한 접촉과 관심이 필요하며 결혼가정 아동의 실태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4
II. 이론적 배경		6
1. 결손가정의 개념		6
2. 결손가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9
3. 결손가정과 아동의 스트레스		14
4.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17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9
1. 연구대상		19
2. 측정도구		21
3. 자료수집방법		23
4. 자료의 분석		24
IV. 연구결과 및 해석		25
1. 결손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의 차이		25
2. 결손이유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의 차이		28
3. 개인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차이		30
4. 결손가정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35
V. 요약, 결론 및 제언		48
1. 요약		48
2. 결론		54
3. 제언		55
참고문헌		57
Abstract		61
부 록		65

표 목 차

<표 III- 1>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20
<표 III- 2>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22
<표 III- 3> 아동의 스트레스 하위영역	23
<표 IV- 1> 결손유형별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검증.....	25
<표 IV- 2> 결손유형별 아동의 스트레스의 차이 검증.....	26
<표 IV- 3> 결손이유별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검증.....	28
<표 IV- 4> 결손이유별 아동의 스트레스의 차이 검증.....	29
<표 IV- 5> 결손가정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31
<표 IV- 6> 결손가정아동의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	32
<표 IV- 7> 결손가정의 형제수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검증	33
<표 IV- 8> 결손가정의 형제수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의 차이 검증	34
<표 IV- 9> 편부가정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상관 관계	36
<표 IV-10> 편모가정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상관 관계	39
<표 IV-11> 조부모가정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상관 관계	41
<표 IV-12> 별거·이혼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상관 관계	44
<표 IV-13> 사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상관 관계	46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가정은 대가족의 형태로 구조적이거나 기능적으로 가정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지만, 1960년대 이후에 급속한 경제성장 그리고 물질과 학 문명의 발달로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생활환경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치관, 도덕관, 윤리관 등에 혼란이 발생했으며, 인구의 도시집중, 대중매체의 발달, 생활양식의 변화로 예전에 찾아 볼 수 없었던 도시문제, 인구문제, 환경문제 등 수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 시켰다.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해체로 핵가족화 되면서 가정의 기능약화 현상이 일어났다. 이 같은 사회 및 가족의 변화로 이혼, 별거, 가출, 유기 등의 가족해체 문제와 부랑아, 비행청소년, 미혼모 등의 가족문제가 분출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가정은 개인의 사랑과 신뢰, 도덕적 가치의 판단과 기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등 성격형성의 원동력이 되어 자녀들에게 심신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문제 가운데 가정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편부모가족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다. 편부모가족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사망, 이혼, 별거, 유기로 인해 편부, 편모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편부모가족은 결합형태에 따라 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부자가족과 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모자가족으로 나누고 그 발생원인에 따라 사망, 이혼, 별거, 유기가족, 미혼모 가족 등으로 구분된다.

아동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 모든 경험은 가정을 바탕으로 이루어

지고 후속경험들은 가정에서 가진 선행 경험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가정에서 접하게 된 경험들은 중요하고 다음 후속경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원식(1988)은 인간은 생물학적 개체로 태어나 부모와 최초로 인간관계를 갖기 시작하여 부모로부터 사랑과 권위를 경험하고 행동을 도모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는 장차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결손가정의 아동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부나 모를 잃게 됨으로써 동일시 대상과 사회적 지지자를 상실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게 된다. 부모의 부재로 인한 걱정이나 두려움을 자주 경험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가정은 외부에서 생긴 갈등을 대화와 신뢰를 통하여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하는데 자녀의 고민과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없다면 이들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아동 자신의 행동평가에 영향을 주는 가장 의미 있는 변인중의 하나는 자아 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할 줄 아는 평가적, 감정적 태도로 자기 자신과 외적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라고 할 수 있다. 강하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획득한 아동은 솔선해서 수행하고 환경을 능동적으로 탐색하여 위험을 감행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획득한 아동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면 높은 수준의 불안을 느끼게 되어 솔선해서 행동을 수행하기 어렵다. 권영미(1999)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개인은 긍정적 자기평가를 하게 되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개인은 부정적 자기평가를 하게 되므로 자기수용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최희웅(1977)은 결손가정 아동이 정상가정 아동보다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회의적이며 자기를 무가치한 인물로 보며 종종 불안을 느끼고 불행스럽게 느끼며,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그의 행동도 불안하고 소극적이라 했다.

김태준(1992)은 결손가정 아동이 정상가정 아동보다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대체로 회의적이고 불안을 느끼며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봄으로써 그의 행동도 비교적 소극적이고 충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강두원(1989)은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의 격리불안을 겪는 아동은 스트레스를 더 받고 문제 발생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아동기는 신체적, 지적, 사회 심리적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시기로, 부모와 집을 떠나 새로이 학교, 사회, 그리고 또래 집단과의 관계를 갖게 되며 규칙적인 생활과 공부, 지식을 습득하는 등 많은 적응적 요구를 겪게 됨으로 유아기 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한 아동기는 학교와 친구, 가정의 상호영향으로 성격발달이 뚜렷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며 이 시기의 발달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부적응과 열등감을 겪게 된다. 이때 아동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 역할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결손가정의 이유와 유형, 아동의 성별 그리고 형제수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차이를 연구함으로써 가족의 한 형태로 잡아가고 있는 결손가정의 아동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사전에 적절한 지도와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결손가정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 결손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조사, 분석,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결손유형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결손이유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넷째,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는 결손 유형 (편부, 편모, 조부모 가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 -1.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결손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 -2. 아동의 스트레스는 결손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Ⅱ :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는 결손이유 (별거나 이혼, 사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1.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결손이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2. 아동의 스트레스는 결손이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Ⅲ : 개인적 특성에 따라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1.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2. 아동의 스트레스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3.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형제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4. 아동의 스트레스는 형제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Ⅳ :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는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Ⅳ-1.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는 결손유형 (편부, 편모, 조부모 가정)에 따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Ⅳ-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는 결손이유 (별거나 이혼, 사별)에 따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결손가정의 개념과 영향, 결손가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결손가정과 아동의 스트레스,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결손가정의 개념과 영향

가. 결손가정의 개념

결손가정이란 양친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결손된 상태인 가정을 말한다(장병림, 1984).

사회가 복잡해지고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사회적 태도와 의식이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이며 독립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가족의 안정과 번영을 위주로 하는 가족주의에서 개인의 삶과 인격이 우선시 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였고, 이는 가족의 분화와 해체를 가속화시켜 부부 중심의 핵가족 이외에 한부모 가정, 노인가정, 소년 소녀가정, 무 자녀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다(변화순 외, 2001).

모자복지법에 의하면 모자(부자)가정을 “모(부)가 세대주로서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 또는 조부모가 부양하고 있는 가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 사별, 유기, 별거등의 사유로 편부, 편모,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결손가정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결손가정은 별거, 유기, 가출 등에 의하여 형성되지만 대부분 배우자의 사망과 부부간의 이혼에 의해서 발생한다. 전통사회에서 한부모 가정의 발생은 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원인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사고사, 이혼의 증가가 결손가정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이소희 외, 2003).

이와 관련하여 모(부)자 가정의 현황을 살펴보면 1985년 9.7%에서 1990년 8.7%, 1995년 8.6%로 감소하다가 2000년 9.4%(통계청, 2001)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의 경우 모(부)자 가정의 구성비를 보면 사별이 가장 많아 44.7%이고 다음이 가출, 유기 등으로 인한 유배유 상태로 22.5%였다. 그리고 이혼에 의한 모(부)자 가정은 21.9%로 1995년의 9.8%에 비해 12.1%나 증가하여 모(부)자 가정의 발생원인에서 중요한 변화는 사별 이외에 이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변화순 외 2001). 이혼은 가정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로 모(부)자 가정이 발생하여 가족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 가족생활의 문제, 특히 자녀에게는 사회·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부)자 가정의 문제는 그 양상이 다양하여 일반화 할 수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모(부)자 가정은 경제적 빈곤, 자녀의 양육문제, 심리·정서적 적응의 문제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손가정은 가족의 구조적·기능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감정처리나 생활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정서적 문제, 자녀양육의 문제 그리고 부모, 형제, 이웃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의 부족 등 적응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의 유형을 편부, 편모, 조부모 가정으로 제한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나. 결손가정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아동은 부모와의 정서적인 결합이 정상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아동의 첫 사회화 경험은 가정에서 일어난다. 자녀들의 성장 발달의 터전인 가정환경에 있어서는 부모의 존재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러한 환경에 결손이 있게 되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과 건전한 성격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편부모는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과 아동의 양육 및 가사의 부담을 혼자 져야한다. 결손가정의 부모양육 태도는 일반가정에 비해 제한적이며, 거칠고 애정을 덜 베풀며, 편부모의 과중한 부담이 많은 스트레스와 불만을 초래시켜 아동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 정상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이 결손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에 비해 활동성, 사회성, 책임성, 사려성 등이 더 양호한 것으로 보았다(김호연, 1995).

편모가정은 남아의 경우 동일시 대상을 잃게 되고 여아는 사랑의 대상이 상실됨으로써 그들의 건전한 사회성 발달에 문제점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편부 가정보다 정서적 환경은 안정되어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에게 많은 기대를 하거나 신경질적으로 감독하면 반항적인 심리상태에 빠지게 되며, 어머니가 남편 대신 지나친 애정을 쏟아 방치하면 유아적이고 자립성이 없어지게 된다(이광희, 1998). 편모 가정은 일반적으로 사회참여의 부족, 대인 관계의 결여, 모 자신의 열등의식 등으로 모는 물론 자녀까지도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위축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녀 양육 및 교육상의 문제로 다수의 모가 직업을 가지게 되므로 자녀를 돌볼 사람이 마땅치 않고 부의 상실로 자녀들의 심리적 고통과 인격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편부가정 자녀는 일반가정 자녀보다 자아개념에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으며(송양숙, 2001), 정원식(1988)은 모성실조는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받아야 할 적절한 심리적 양육 및 지도의 결핍으로 기인되는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과 성격 형성의 왜곡 및 장애를 초래하여 사회 부적응의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김광률(1987)은 어머니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내심이 부족하고 감정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여 무분별하게 감정을 폭발하며 어른이 되어도 타산적이거나 이기적으로 되기 쉬워 사회생활이나 동료 사이의 적응에 문제점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편부 가정은 모성에 바탕을 둔 생활 훈련이 어렵고 특히 남아는 사랑의 대상을 잃게 되고 여아는 동일시의 대상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역할 수행상의 혼란과 심리적 고독감, 애정 결핍, 사회적 위축감, 감정표현 수요의 좌절 친구관계에 있어서의 변화 등 정서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2. 결손가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가. 자아존중감 개념과 특성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사랑 및 인정을 받고자 하며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길 바라고, 자신을 사랑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자아사랑, 자아확신, 자아평가, 자아가치 등과 유사하게 지칭되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이다(허혜경 외, 2002).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적, 감정적 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평가는 대상의 유용성과 도구적 가치에 근거를 둔 인지

적 반응인 반면, 감정은 평가의 크기나 반응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실제적 가치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을 수용, 만족, 선호하는 반응이다(김희화, 1998).

Heine, Lehman, Markus, 그리고 Kitayama(1999)자기존중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자기의 전체적 평가의 긍정성, 자기를 좋아함을 말한다고 하였다(김정화, 2000, 재인용).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하나의 특별한 개체, 즉 자아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인 태도로 정의 하였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개인이 자신을 가치롭다고 여기는 것 현존하는 자신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존하지 않는 자신에 관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능력을 비롯한 자신의 모든 모습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 관심과 인정 및 존대에 대한 판단적인 개념이라 볼수 있다(이훈진, 1999, 재인용).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만들고 유지하는 평가적 자원이라고 말하고 자아존중감은 개인에 관해서 알고 있는 태도에서 표현되는 가치의 개인적 판단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Pervin(1970)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적인 가치판단이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태도나 개개의 상황에 처해 있는 특수한 태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성격특성으로 여겨지는 것이라 했다(박정옥, 2003, 재인용).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사고과정, 정서, 태도 및 가치관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개인의 행동 또는 목표 지향적인 행동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심리적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아존중감을 유지향상하려는 강렬한 요구를 가지고 있어서 일상생활 과정에서 어떠한 이해가 분명한 우선 자기에 대한 평가적 개념으로서의 자아존중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황경희,2000).

Coopersmith(1967)가 그의 실험적 연구에서 밝힌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의 행동 특성을 요약하면 첫째, 자신의 지각이나 판단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낸다. 둘째, 자신의 견해를 표방하는데 있어 개방적이다. 셋째, 자기 표현이 분명하고 활기차다. 넷째, 집단 토론을 할 경우, 관찰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다섯째,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접근하며,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여섯째, 외부적인 문제를 보다 날카롭게 진단하고 외부세계의 정보를 보다 쉽게 처리한다.

일곱째, 자신에 대한 선입견을 보다 적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끄집어 내는데 보다 자유로운 인지통로를 지닌다.

정원식(1988)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자기를 가치있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가치에 대하여 회의적이며 자기를 무가치한 인물로 보며 종종 불안을 느끼고 우울해하며 불행스럽게 느낀다 따라서 자기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며 행동도 불안정하고 소극적이게 된다고 한다.

Reasoner(1982)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며 타인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잘 인식하고, 주위환경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소속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여 성취감이 높으며, 자신감이 있고 자기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고 목적감과 미래에 대한 이상으로 동기화되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위의 자료를 잘 이용하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여 모험하는 일이 적고 타인에 대한 필요 없는 신경과 의존심이 많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한미라, 1996, 재인용).

자아존중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자기수용과 정확한 자기지각에 토대를 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자신을 사랑하는 심리상태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는 외부의 사건을 보는 시각 및 행동양상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개인의 행동결과에 대한 원인을 추론하는 인지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성장 발달과 자아실현의 토대가 됨은 물론, 나아가 건강한 사회조성에도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요컨대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과 외적환경, 그중에서도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결손가정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최희웅(1977)은 결손과 정상가정 집단 205명씩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에서 결손가정 아동이 정상가정아동보다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회의적이며 자기를 무가치한 인물로 보며 행동도 종종 불안을 느끼고 불행스럽게 느끼며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그의 행동도 불안하고 소극적이다. 또 강해구(1987)는 결손가정아보다 정상가정아가 가정관과 결혼관이 더 긍정적이며 자기 신뢰의 정도 또한 정상 가정의 아동이 더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김태준(1992)은 결손가정 아동이 정상가정 아동보다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대체로 회의적이고 불안을 느끼며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봄으로써 그의 행동도 비교적 소극적이고 충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양영순(1994)은 결손가정 아동보다 정상가정 아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람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으며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가정환경 가운데서도 물리적인 환경보다는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가 아동 자아개념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조용문(1985)은 결손가정은 정상 가정에 비해 가족관계가 거부적이며 친애가 결여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정은 자녀의 성격적 자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고 결손 가정 아동은 정상 가정아에 비해 성격적 적응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김남숙(1993)은 일반가정의 자녀가 이혼가정의 자녀보다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고 이혼가정의 자녀는 부모의 이혼 전 갈등으로 인한 양육태도의 불일치, 이혼 후의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부정적인 평가, 사회 환경적 요인의 변화 등으로 자아존중감에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고 하였다. Rogenberg도 이혼·별거가정의 아동들은 일반가정 아동들보다 대부분 자아개념이 낮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박경금,1996, 재인용).

권영미(1999)의 연구에 위하면 이혼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정상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이혼으로 정서적, 심리적으로 아직 혼란스러우며 이혼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인 시각과 평가로 자기를 낮추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결손가정 환경은 아동 스스로 지니게 되는 열등감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고 정서불안이나 문제행동, 비행 같은 부적응마저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결손가정과 아동의 스트레스

가. 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는 적응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1960년에는 신체적 긴장이거나 압박으로 쓰였고, 1970년대에는 그 정의가 확대되어 사람과 물체가 받는 압박으로까지의 개념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는 다시 스트레스 개념을 사람에게 국한시켜 신체기관과 정신력에 생기는 긴장이라고 정의하였다(오가실, 1985).

스트레스는 개인의 자존감과 성실성, 안녕 등을 위협하는 심리적, 신체적인 반작용의 형태이며 개인의 심리적인 자원을 총동원하여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자신을 보호하도록 한다.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부담스럽고 압도될 때도 있으며 개인의 에너지와 능력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개인의 성장과정에 항상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장연집 외, 1997).

Seyle(1984)가 스트레스의 개념을 생물학적으로 제시한 이후로 스트레스는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고, Lazarus 와 Folkman (1984)은 스트레스는 그 자체가 직접 부적응 반응을 초래하기 보다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어떤 능력과 개인적 자원을 유용하여 반응하느냐가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스트레스를 그 의미에 따라서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자극과 반응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로 구별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생물학과 의학계에 널리 퍼져 있던 반

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정의는 스트레스 하에 있는 상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유기체, 스트레스 경험으로 인한 고통 등을 의미한다. 즉, 어떤 사건으로 인한 변화가 신체의 항상성을 무너뜨리게 되면 신체는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내적인 반응태세를 취하게 된다고 보고 개인의 반응에 중점을 두는 입장이다.

둘째,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정의는 행동주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스트레스를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 즉, 하나의 자극으로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자연재해, 해로운 조건, 질병, 해고, 상실등과 같은 환경 속의 사건에 중점을 둔다. 개인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적인 존재이며 스트레스를 그대로 다 받는다는 전제를 갖는다. 이 입장은 생활사건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은 생활사건 목록에서 최근에 경험한 생활사건의 전체수 혹은 경험한 생활사건 항목에 부여된 가중치의 합으로 나타냈다.

셋째, 상호역동으로서의 스트레스 정의는 환경과 인간간의 관계성을 강조한다 스트레스를 환경과 개인간의 복잡한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보고 심리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어떠한 환경적 사건도 개인의 지각이나 평가가 독립되어 하나의 긴 장원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관계론적 입장에서 자극의 스트레스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극 혹은 그 반응자체가 아니고, 유기체가 환경적 자극을 평가하고 요구에 대해 매개체로서의 개인은 환경의 자극요소와 그 반응을 직선적으로 매개 할 뿐만아니라 개인의 지각 인지 및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등이 환경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이 생활 사건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 사이에 일어나는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과정을 강조한다(양병환, 1991). 그래서 개인이 그 사건을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 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인지적 접근(상호역동적 관점)이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트레스란 환경과 개인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부터 생겨나는 심리적 긴장과 갈등으로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스트레스는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나. 결손가정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가정환경과 정신 건강과의 관계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계속 연구되어 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모의 부부관계, 부모의 자녀양육태도, 형제자매관계,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경제적 문화적 상태등이 개인의 정신 건강 형성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윤선자, 2003). 아동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사소한 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동수준에서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송양숙(2001)의 연구에 의하면 결손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외모, 건강, 자신감등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또한 편부, 편모 가정의 아동보다 양친 모두 없는 결손가정 아동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부모의 결혼 상태에서 재혼, 이혼, 별거등의 장애나 부친이나 모친의 상실등은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윤선자, 2003).

임영식(2000)은 아동들은 스트레스를 받을때 부모에게 의지하고 안정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부모의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우며 아동들

에게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여 아동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친구에게서 지지를 구하게 된다. 불안정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정상적인 청소년기 발달을 방해하는 학업적, 정서적 문제를 보이며 반사회적 행동을 자주 보인다고 했다.

4.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스트레스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스트레스의 대상이 어른만이 아니라 아동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ederids(1983)는 아이들도 어른처럼 거의 매일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고, 일상생활,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의 사건들이 아동들에게 심각하고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자아존중감은 인간행동 특성에 대단히 중요한 정의적 특성으로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적 태도이고, 비교적 지속적인 성격특성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구조로서 개인의 경험에 의해 변화 가능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미라(199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낮게 지각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여자의 자아존중감은 교사관계 스트레스보다 친구관계 스트레스와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다.

석지혜(1997)는 스트레스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 검증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자아개념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조절변인으로서의 영향력이 있음과 스트레스 요인이 많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저하될 수 있음을 밝혀주

고 있다.

이상과 같이 자아존중감은 근본적인 특성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성격특성이므로 결손가정 환경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한 양육부모의 양육태도와 친척이나 사회의 도움을 통하여 사회환경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보충된다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회복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사별로 인해 결손가정이 증가와 아동의 사회적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결손가정의 가정환경 조건이 조부모, 편부, 편모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 분석하여 결손가정 아동의 이해를 높이고 아동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장에서는 연구대상, 측정도구, 자료의 분석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결손가정의 편부, 편모, 조부모가정 초등학교 4, 5, 6학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172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배경은 다음<표Ⅲ-1>에 제시되어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 대상자의 학년은 4학년이 55명으로 전체의 32.0%를 보이며, 5학년은 40명으로 23.3%, 6학년은 77명으로 44.7%를 보였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아동이 79명으로 45.9%의 분포를 보였으며, 여자아동이 93명으로 54.1%를 보였다. 가족유형에서는 편모가정이 48명으로 27.9%를 나타내고 있으며, 편부가정은 112명으로 65.1%, 조부모가정이 12명으로 7.0%를 보였다. 한 가정이 된 이유를 살펴보면, 별거, 이혼이 95명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별이 50명으로 29.0%를 나타내었으며, 직장관계가 27명으로 15.7%를 나타냈다. 본 연구대상자의 결손이유는 별거 이혼이 가장 많았고, 이는 요즘의 부부사이의 불화로 인한 별거나 이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III-1>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n = 172)

구 분		n	%
학 년	4	55	32.0
	5	40	23.3
	6	77	44.7
성 별	남	79	45.9
	여	93	54.1
가 족 유 형	편 모	48	27.9
	편 부	112	65.1
	조부모	12	7.0
한가정이 된 이유	직장관계	27	15.7
	별거, 이혼	95	55.3
	사별	50	29.0
형 제 수	1	39	22.7
	2	79	45.9
	3인이상	54	31.4
계		172	100.0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측정도구는 결손가정아동의 일반적인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지와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결손가정 아동의 일반적인 배경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는 결손가정아동의 개인적인 특성 즉, 학년, 성별, 형제수 등을 묻는 문항과 결손유형, 결손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척도와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1. 자아존중감 검사



Coopersmith(1967)의 자아존중감검사(self-esteem inventory:SEI)를 토대로 윤수일(1998)이 한국의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문항을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하위변인은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업에 대한 자아존중감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은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업적 자아존중감이 각 7문항이고 일반적 자아존중감이 10문항으로 총 31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점수는 ‘매우 그렇다’의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5단계의 리커트형이 척도이다. 전체 문항은 긍정적 진술 20문항과 부정적 진술 11문항(2, 4, 7, 8, 9, 11, 12, 17, 21, 23, 30)으로 되어 있으며 부정적 진술 문항의 경우 점수 결과를 역으로 채점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타당성을 산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부하량이 0.3이하인 문항을 제거하고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제거된 문항은 일반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인 8, 17번과 학업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1,5번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아존중감의 신뢰도는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으로 측정되었고, 네가지 변인으로 구분한 자아존중감의 신뢰도 계수는 모두 0.7을 넘기고 있어 자아존중감 변인의 신뢰도는 높다고 할수 있다. 문항구성은 <표Ⅲ-2> 와 같다.

<표Ⅲ-2>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하 위 요 인	문 항 변 호	cronbach's α
일반적 자아	2, 3, 6, 7, 8, 9, 14, 15, 16, 17	.70
사회적 자아	18, 20, 22, 23, 24, 25, 26	.84
가정적 자아	4, 11, 12, 27, 28, 30, 31	.78
학업적 자아	1, 5, 10, 13, 19, 21, 29	.72

2. 스트레스 척도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지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미현, 유안진(1995)의 아동의 스트레스 척도에 관한 질문지를 재작성하여 사용한 백경애(1997)의 척도를 참고 수정·보완했다.

아동 스트레스 요인을 부모영역 8문항, 가정환경영역 7문항, 친구영역7문

항, 학업영역7문항, 교사 및 학교영역6문항 총 35문항을 4점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5개의 스트레스의 영역별 신뢰도 계수가 0.7을 상회하여 신뢰도는 높고 문항구성은 <표Ⅲ-3> 과 같다.

〈표Ⅲ-3〉 아동의 스트레스 하위영역

하 위 영 역	문 항 번 호	cronbach's α
부 모 영 역	1, 2, 3, 4, 5, 6, 7, 8,	.80
가 정 환 경 영 역	9, 10, 11, 12, 13, 14, 15,	.81
친 구 영 역	16, 17, 18, 19, 20, 21, 22,	.90
학 업 영 역	23, 24, 25, 26, 27, 34, 35	.83
교사 및 학교영역	28, 29, 30, 31, 32, 33,	.79

3.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2월 15일부터 3월15일간 이었다. 자료의 수집방법은 지역별로 동사무소를 선정하여 결손가정 수를 파악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자가 동사무소별 사회복지담당에게 설문지 실시방법에 대한 설명과 연구의 목적 등을 설명한 후 을 한 후 사회복지담당이 직접 실시하도록 하였다.

4.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PC WIN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개인적인 변인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나 ANOVA를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 결혼이유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과 상관분석을 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 본 후 연구 문제를 검증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결혼유형(편부, 편모, 조부모가정)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의 차이

아동의 가정 결혼유형을 편부, 편모, 조부모 유형으로 나누고 집단별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하여 ANOVA를 실시하였다.

<표IV-1> 결혼유형(편부, 편모, 조부모)별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검증

하위요인	편 부	편 모	조 부 모	F
	(n=48)	(n=112)	(n=12)	
	M(SD)	M(SD)	M(SD)	
일반자아	3.21(0.49)	3.23(0.53)	3.41(0.39)	0.75
사회자아	3.35(0.53)	3.34(0.71)	3.73(0.65)	1.97
가정자아	3.76(0.58)	3.97(0.59)	3.94(0.41)	2.20
학업자아	3.34(0.49)	3.39(0.60)	3.82(0.51)	3.49*

* p < .05,

<표IV-1>에서 일반자아는 조부모가정 아동(M=3.41)이 편모가정의 아동(M=3.23)과 편부가정 아동(M=3.21)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자아는 조부모가정 아동(M=3.73)이 편부가정의 아동(M=3.35)과 편모가정의 아동(M=3.34)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자아는 편모가정 아동(M=3.97)이 조부모가정의 아동(M=3.94)과 편부가정의 아동(M=3.7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업자아는 조부모가정 아동(M=3.82)이 편모가정의 아동(M=3.39)과 편부가정의 아동(M=3.3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3.49, $p < .05$)

위와 같이 여러변인 중 학업자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F=3.49, $p < .05$), **결혼유형별로 보면 조부모가족 아동이 편부가족 아동과 편모 가족아동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IV-2> 결혼유형(편부, 편모, 조부모)별 아동의 스트레스의 차이 검증

하위영역	결혼유형			F
	편 부 (n=48) M(SD)	편 모 (n=112) M(SD)	조 부모 (n=12) M(SD)	
부 모	2.28(0.62)	2.08(0.56)	2.38(0.38)	2.98
가 정	1.97(0.80)	1.78(0.54)	2.10(0.51)	2.41
친 구	1.77(0.79)	1.63(0.69)	1.76(0.54)	0.71
학 업	2.19(0.81)	2.20(0.69)	2.15(0.50)	0.38
교사 및 학교	1.84(0.68)	1.71(0.57)	2.04(0.28)	2.06

<표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영역 스트레스는 조부모가정 아동(M=2.38)이 편부가정의 아동(M=2.28)과 편모가정의 아동(M=2.08)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영역 스트레스는 조부모가정 아동(M=2.10)이 편부가정 아동(M=1.97)과 편모가정 아동(M=1.78)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친구영역 스트레스는 편부가정 아동(M=1.77)이 조부모가정의 아동(M=1.76)과 편모가정 아동(M=1.63)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업영역 스트레스는 편모가정 아동(M=2.20)이 편부가정 아동(M=2.19)과 조부모가정 아동(M=2.15)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사 및 학업영역 스트레스는 조부모가정 아동(M=2.04)이 편부가정 아동(M=1.84)과 편모가정 아동(M=1.71)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결손가정이 아동들의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부모영역, 가정영역, 교사 및 학교영역에서 조부모가정 자녀들이 다른 가족형태보다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부모 가정에서는 아동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부모의 부재로 인한 외부의 편견이나 사회적 통념으로 외부의 다양한 자극에 영향을 받아 스트레스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 결손이유 (별거·이혼, 사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차이

가정의 결손이유를 별거·이혼과 사별집단으로 나누어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와 스트레스 영역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표IV-3> 결손이유(별거나 이혼, 사별)별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검증

하위요인	별거·이혼 (n=95)		사 별 (n=50)		t
	M	SD	M	SD	
일반자아	3.18	0.54	3.32	0.42	-1.64
사회자아	3.37	0.62	3.48	0.61	-0.95
가정자아	3.78	0.60	4.11	0.50	-3.31**
학업자아	3.37	0.55	3.53	0.56	-1.57

**p< .01

<표IV-3>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반자아는 결손 이유 중 사별(M=3.32)이 별거·이혼(M=3.18)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사회자아는 결손 이유 중 사별(M=3.48)이 별거·이혼(M=3.37)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가정자아는 결손 이유 중 사별(M=4.11)이 별거·이혼(M=3.7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t=-3.31, p<.01)


학업자아는 결손 이유 중 사별(M=3.53)이 별거·이혼(M=3.37)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결손이유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하위 요인중 가정자아($t=-3.31,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결손이유 중 가정자아 평균이 사별 (M=4.11)이 별거·이혼에 의한 결손 가정이 된 가정의 아동평균 (M=3.78)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일반자아, 사회자아, 학업자아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사별이 별거·이혼보다 높은 자아 존중감을 나타냈다.

이는 결손의 중요한 이유인 이혼·별거가 사망일 때 보다 더 결손가정 아동의 정서, 행동 등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박명숙(1996), 최선애(1984)의 결과와 일치한다.

<표IV-4> 결손이유 (별거나 이혼, 사별)별 아동의 스트레스의 차이

검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하위영역	별거·이혼 (n=95)		사 별 (n=50)		t
	M	SD	M	SD	
부 모	2.18	0.54	2.13	0.53	0.53
가 정	1.88	0.68	1.96	0.51	-0.80
친 구	1.75	0.79	1.68	0.63	0.57
학 업	2.25	0.72	2.24	0.67	0.11
교사 및 학교	1.82	0.64	1.83	0.51	-0.03

<표IV-4>에서 부모영역 스트레스는 결혼 이유 중 별거·이혼(M=2.18)이 사별(M=2.13)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가정환경 영역 스트레스는 결혼 이유 중 사별(M=1.96)이 별거·이혼(M=1.88)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친구영역 스트레스는 결혼 이유 중 별거·이혼(M=1.75)이 사별(M=1.68)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업영역 스트레스는 결혼 이유 중 별거·이혼(M=2.25)이 사별(M=2.24)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교사 및 학교영역 스트레스는 결혼 이유 중 사별(M=1.83)이 별거·이혼(M=1.8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스트레스 영역의 다섯 가지 변인 모두에서 결혼이유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결혼이유에 따른 스트레스는 각 하위요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결혼이유의 원인인 사별, 별거·이혼 등의 원인이 스트레스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3. 개인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차이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와는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 하였다.

<표IV-5> 결혼가정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하위요인	남 (n=79)		여 (n=93)		t
	M	SD	M	SD	
일반자아	3.26	0.44	3.21	0.56	0.64
사회자아	3.28	0.69	3.44	0.63	-1.50
가정자아	3.97	0.55	3.86	0.61	1.27
학업자아	3.40	0.64	3.41	0.52	0.00

<표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자아는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에서 남자(M=3.26)가 여자(M=3.21)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사회 자아는 여자(M=3.44)가 남자(M=3.28)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가정 자아는 남자(M=3.97)가 여자(M=3.8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업 자아는 여자(M=3.41)가 남자(M=3.40)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 형성은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IV-6> 결손가정 아동의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

하위영역	남 자 (n=79)		여 자 (n=93)		t
	M	SD	M	SD	
	부 모	2.25	0.54	2.08	
가 정	1.84	0.59	1.87	0.66	-0.21
친 구	1.60	0.65	1.74	0.75	-1.32
학 업	2.17	0.72	2.22	0.71	-0.40
교사 및 학교	1.76	0.58	1.78	0.60	-0.16

<표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영역의 스트레스는 남자(M=2.25)가 여자(M=2.08)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환경영역의 스트레스는 여자(M=1.87)가 남자(M=1.84)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친구영역의 스트레스는 여자(M=1.74)가 남자(M=1.60)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업영역의 스트레스는 여자(M=2.22)가 남자(M=2.17)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사 및 학교영역의 스트레스는 여자(M=1.78)가 남자(M=1.7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성별 차이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는 하위영역인 가정환경영역, 친구영역, 학업영역, 교사 및 학교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부모영역에서는 여자 자녀보다 남자 자녀에서 스트레스

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자 아동인 경우 부모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다른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형제수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의 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가 형제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형제수를 독립변인으로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ANOVA를 실시하였다.

<표IV-7> 결손가정의 형제수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검증

하위요인	1명 (n=39)	2명 (n=79)	3명 (n=54)	F
	M(SD)	M(SD)	M(SD)	
일반자아	3.25(0.54)	3.25(0.49)	3.21(0.52)	0.08
사회자아	3.52(0.60)	3.31(0.64)	3.34(0.73)	1.29
가정자아	3.73(0.48)	4.11(0.51)	3.74(0.66)	9.42**
학업자아	3.49(0.61)	3.38(0.56)	3.38(0.58)	0.49

**p < .01

<표IV-7>에서보는 바와 같이 일반자아는 형제수에 따른 차이검증에서 형제가 1명, 2명(M=3.25)인 경우가 3명(M=3.21)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사회자아는 형제수 1명(M=0.54)인 경우가 3명(M=0.52), 2명(M=0.49)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자아는 형제수 2명(M=4.11)인 경우가 3명(M=3.74), 1명(M=3.7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9.42, p<.01)

학업자아는 형제수 1명(M=3.49)인 경우가 2명, 3명(M=3.38)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자아존중감 하위 요인 중 가정자아(F=9.42,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다른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자아존중감의 세 가지 영역에서 형제수가 2명인 경우에서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게 나오고 3명이상인 경우가 1명인 경우 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8> 결손가정의 형제수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의 차이 검증

하위영역	형제수			F
	1명	2명	3명	
	(n=39) M(SD)	(n=79) M(SD)	(n=54) M(SD)	
부 모	2.26(0.57)	2.13(0.58)	2.13(0.57)	0.73
가 정	2.08(0.61)	1.74(0.56)	1.87(0.69)	3.91 *
친 구	1.94(0.71)	1.54(0.63)	1.68(0.77)	4.08 **
학 업	2.25(0.71)	2.15(0.75)	2.22(0.67)	0.26
교사 및 학교	1.98(0.60)	1.66(0.57)	1.78(0.59)	3.97 *

* p< .05, **p< .01

<표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트레스는 부모영역에서 형제수에 따른 차이 검증에서 형제가 1명(M=2.26)인 경우가 2명,3명(M=2.13)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영역 스트레스는 1명(M=2.08)인 경우가 3명(M=1.87), 2명(M=1.7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3.91, $p<.05$)

친구영역 스트레스는 1명(M=1.94)인 경우가 3명(M=1.68), 2명(M=1.5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4.08, $p<.01$)

학업영역 스트레스는 1명(M=2.25)인 경우가 3명(M=2.22), 2명(M=2.15)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사 및 학교영역 스트레스는 1명(M=1.98)인 경우가 3명(M=1.78), 2명(M=1.6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3.97, $p<.05$)

이상과 같이 스트레스의 가정영역, 친구영역, 교사 및 학교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형제수가 2명인 경우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낮게 나오고, 3명 이상인 경우가 1명인 경우 보다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1). 결손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결손유형별 가정에서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IV-9> 편부가정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상관 관계

	1	2	3	4	5	6	7	8	9
일반자아	1								
사회자아	0.56**	1							
가정자아	0.79**	0.56**	1						
학업자아	0.74**	0.39**	0.65**	1					
부모영역	-0.05	0.10	-0.02	0.27	1				
가정영역	0.30*	0.05	-0.29*	-0.11	0.69**	1			
친구영역	-0.39**	0.04	-0.21	-0.23	0.42**	0.71**	1		
학업영역	-0.21	0.18	-0.11	-0.03	0.57**	0.69**	0.56**	1	
교사 및 학교영역	-0.48**	-0.08	-0.32*	-0.31*	0.51**	0.80**	0.81**	0.81**	1

* p< .05 **p< .01

<표IV-9>에서 편부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영역 스트레스에서 일반자아($r=-.05$), 사회자아($r=.10$), 가정자아($r=-.02$), 학업자아($r=.27$)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영역 스트레스에서는 일반자아 ($r=.30$ $p<.05$)와 유의미한 정적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가정자아($r=-.29$, $p<.05$)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자아($r=.05$), 학업자아($r=-.1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친구영역 스트레스에서는 일반자아 ($r=-.39$, $p<.01$)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자아($r=.04$), 가정자아($r=.21$), 학업자아($r=.23$)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겪으면, 일반자아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친구영역 스트레스가 클수록 학업자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학업영역 스트레스에는 일반자아($r=.21$), 사회자아($r=.18$), 가정자아($r=-.11$), 학업자아($r=-.03$)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교사 및 학교영역 스트레스는 일반자아 ($r=-.48$)과 $p<.01$ 수준에서, 가정자아 ($r=-.32$), 학업자아 ($r=-.31$)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자아 ($r=-.08$)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아동은 일반자아, 가정자아, 학업자아가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편부가정의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영역별 스트레스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자아와 가정자아 학업자아에서 상관계수가 높게 나와 아동들의 자아 형성이 가정자아와 학업자아와 일반자아에 관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자아와 스트레스의 영역별로 부모영역과 학업영역의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자아는 자아존중감에서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스트레스의 영역별로는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자아에서는 자아존중감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스트레스 영역별로는

가정영역과 교사 및 학교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정자아존중감이 높으면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아동이 자아존중감도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영역별로는 영역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부모 영역에서는 가정환경영역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0.6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가정환경 영역에서는 교사 및 학교영역과 친구영역과 학업영역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교에서 가장 관계가 많은 교사와 친구에 대한 스트레스는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에서 일반자아와 사회자아($r=.56, p<.01$), 가정자아($r=.79, p<.01$), 학업자아($r=.74, p<.01$)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일반자아 존중감이 높으면 사회자아 존중감도 높고 가정적,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도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표IV-10> 편모가정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일반자아	1								
사회자아	0.60**	1							
가정자아	0.41**	0.29**	1						
학업자아	0.64**	0.58**	0.35**	1					
부모영역	-0.15	-0.13	-0.47**	0.22*	1				
가정영역	-0.09	-0.09	-0.21*	-0.07	0.41**	1			
친구영역	-0.21*	0.15	-0.16	-0.19*	0.36**	0.47**	1		
학업영역	-0.08	0.00	-0.02	-0.07	0.54**	0.58**	0.40**	1	
교사 및 학교영역	-0.11	-0.03	-0.07	-0.01	0.36**	0.64**	0.62**	0.75**	1

* P< .05 **P< .01

<표IV-10>에서 편모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영역 스트레스에서 가정자아($r=-.47, P<.01$)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학업자아($r=.22,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일반자아 ($r=-.15$), 사회자아 ($r=.13$)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영역 스트레스에서 가정자아($r=-.21,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일반자아($r=-.09$), 사회자아($r=-.09$), 학업자아

($r=-.07$)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친구영역 스트레스는 일반자아($r=-.21, p<.05$), 학업자아 ($r=-.19, p<.05$)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자아($r=.15$), 가정자아($r=-.16$)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아동의 친구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겪으면 일반자아, 학업자아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영역 스트레스는 일반자아($r=-.08$), 사회자아($r=.00$), 가정자아($r=-.02$), 학업자아($r=-.07$)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

교사 및 학교영역 스트레스는 일반자아($r=-.11$), 사회자아($r=-.03$), 가정자아 ($r=-.07$), 학업자아($r=-.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종합하면, 편부가정의 아동의 일반자아와 학업자아에서 상관계수가 높게 나와 아동들의 자아 형성이 학업자아가 일반자아에 관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자아와 스트레스의 영역별로 친구영역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자아는 편부가정의 아동과 마찬가지로 자아 존중감에서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스트레스의 영역별로는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자아에서는 자아존중감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스트레스 영역별로는 가정환경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영역별로는 영역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교사 및 학교영역과 다른 스트레스요인 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데 학업영역과 교사 및 학교 영역 간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변인끼리 서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학업스트레스와 교사 및 학교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r=.75, p<.01$), 이것은 학교에서 가장 관계가 많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표IV-11> 조부모 가정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상관 관계

	1	2	3	4	5	6	7	8	9
일반자아	1								
사회자아	0.46	1							
가정자아	0.38	0.11	1						
학업자아	0.85**	0.34	0.65*	1					
부모영역	0.53	0.42	-0.01	0.34	1				
가정영역	-0.38	0.19	-0.53	-0.37	0.34	1			
친구영역	0.00	0.45	-0.42	-0.15	0.50	0.35	1		
학업영역	-0.09	0.31	-0.73**	-0.34	0.36	0.54	0.88**	1	
교사 및 학교영역	-0.14	-0.08	-0.38	-0.06	-0.51	0.83**	0.67**	0.69*	1

* $P < .05$ ** $P < .01$

<표IV-11>에서 조부모가정 자녀 영역별 상관분석한 결과 부모영역 스트레스는 일반자아($r=.53$), 사회자아($r=.42$), 가정자아($r=-.01$), 학업자아($r=.34$)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가정영역 스트레스는 일반자아($r=-.38$), 사회자아($r=.19$), 가정자아($r=-.53$), 학업자아($r=-.37$)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친구영역 스트레스는 일반자아($r=.00$), 사회자아($r=.45$), 가정자아($r=-.42$), 학업자아($r=-.15$)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학업영역 스트레스는 가정자아($r=-.73$, $P<.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자아($r=-.38$), 사회자아($r=.19$), 학업자아($r=-.37$)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클수록 가정자아존중감이 낮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교사 및 학교영역 스트레스는 일반자아($r=-.14$), 사회자아($r=-.08$), 가정자아($r=-.38$), 학업자아($r=-.06$)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즉 조부모 가정아동은 전체적으로 변수간 상관관계가 편부와 편모의 가정에 비해 통계적으로 차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자아에서는 학업자아에서만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고, 스트레스 영역과는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아는 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영역별로는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자아에서는 자아존중감에서 학업자아 상관관계가 있고, 스트레스 영역별로는 학업영역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 가정 아동은 가정자아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영역별로는 영역 간 상관관계는 학업영역과 친구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관관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학교에서 가장 관계가 많은 친구에 대한 스트레스는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학업자아 존중감에서 일반자아와 가정자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학업자아가 높으면 일반자아존중감이 높고, 가정자아 부분에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도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2). 결손이유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의 관계

결손이유별 가정에서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IV-12> 별거·이혼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일반자아	1								
사회자아	0.71**	1							
가정자아	0.55**	0.49**	1						
학업자아	0.72**	0.63**	0.46**	1					
부모영역	-0.17	-0.06	-0.19	0.10	1				
가정영역	-0.20*	0.04	-0.23*	-0.10	0.62**	1			
친구영역	-0.25*	0.14	-0.07	-0.18	0.50**	0.56**	1		
학업영역	-0.20*	0.03	-0.00	-0.12	0.61**	0.64**	0.55**	1	
교사 및 학교영역	-0.28**	-0.10	-0.11	-0.23	0.50**	0.69**	0.75**	0.74**	1

* P < .05 **P < .01

<표I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손이유중 별거 이혼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영역별 스트레스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영역 스트레스

는 일반자아($r=-.17$), 사회자아($r=-.06$), 가정자아($r=-.09$), 학업자아($r=.10$)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가정영역 스트레스는 일반자아($r=-.20, p<.05$), 가정자아($r=-.23, p<.05$)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자아($r=.04$), 학업자아($r=-.10$)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친구영역 스트레스는 일반자아($r=-.25, p<.05$)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자아($r=.14$), 가정자아($r=-.07$), 학업자아($r=-.18$)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학업영역 스트레스는 일반자아($r=-.20, p<.05$)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자아($r=.03$), 가정자아($r=-.00$), 학업자아($r=-.12$)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교사 및 학교영역 스트레스는 일반자아($r=-.28,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사회자아($r=-.10$), 가정자아($r=-.11$), 학업자아($r=-.23$)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즉 결혼이유 중 별거, 이혼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인간에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반자아와 학업자아, 사회자아에서 상관관계가 높아 결혼가정의 부모가 별거나, 이혼에 의한 경우의 자아존중감에는 일반자아의 경우 학업과 사회자아가 관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하위영역에서는 교사 및 학교와 친구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r=.75, p<.01$), 이것은 아동들이 친구 스트레스가 교사 및 학교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영역별로는 대체로 스트레스 영역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부모영역과 교사 및 학교영역의 변수가 상관관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IV-13> 사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상관 관계

	1	2	3	4	5	6	7	8	9
일반자아	1								
사회자아	0.55**	1							
가정자아	0.66**	0.40**	1						
학업자아	0.67**	0.48**	0.70**	1					
부모영역	-0.32*	-0.12	-0.46**	-0.35*	1				
가정영역	-0.45**	0.03	-0.51	-0.32**	0.48**	1			
친구영역	-0.43**	-0.31*	-0.43**	-0.55**	0.27**	0.59**	1		
학업영역	-0.17	-0.05	-0.16	-0.01	0.23	0.51**	0.26	1	
교사 및 학교영역	-0.35	-0.04	-0.33	-0.06	0.28**	0.71**	0.52**	0.76**	1

* P< .05 **P< .01

<표IV-13>에서 결손이유중 사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영역별 스트레스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영역 스트레스는 일반자아($r=-.32$, $p<.05$), 가정자아($r=-.46$, $p<.01$), 학업자아($r=-.35$, $p<.05$)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사회자아($r=-.12$)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영역 스트레스는 일반자아($r=-.45$, $p<.01$), 학업자아($r=-.32$, $p<.01$)와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자아 존중감($r=.03$), 가정자아 존중감($r=-.5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친구영역 스트레스는 일반자아($r=-.43$, $P<.01$), 사회자아($r=-.31$, $p<.05$), 가정자아($r=-.43$, $p<.01$), 학업자아($r=-.55$, $p<.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학업영역 스트레스는 일반자아($r=-.17$), 사회자아($r=-.05$), 가정자아($r=-.16$), 학업자아($r=-.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

교사 및 학교영역 스트레스는 일반자아($r=-.28$), 사회자아($r=-.10$), 가정자아($r=-.11$), 학업자아($r=-.23$)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

즉 결손이유 중 사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 존중감 변인간에는 상관관계가 높은 나타났고, 스트레스 영역별로는 부모영역, 친구영역, 가정환경영역에서 자아 존중감과 부적상관 관계가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아 존중감에서는 가정자아와 학업자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영역별로는 대체로 스트레스 영역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가정환경 영역과 교사 및 학교 영역이 변수가 스트레스 영역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결손가정의 유형과 아동의 성별, 학년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차이를 연구하여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 아울러 결손가정 아동이 가정환경으로 인해 비행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것을 예방하고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개인 상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손유형(편부, 편모, 조부모가정)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결손이유(별거·이혼, 사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넷째,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연구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제주지역 결손가정(모자, 부자, 조부모가정)의 초등학교 4, 5, 6학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172명을 임의 표집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로는 자아존중감 검사와 스트레스 검사지, 그리고 개인별 배경 (개인의 특성, 결손유형, 결손이유)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로는 윤수일(1998)이 한국의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문항을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일반자아, 사회자아, 가정자아, 학업자아의 4개 하위영역을 측정하였다.

스트레스 측정도구로는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지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미현, 유안진(1995)의 아동의 스트레스 척도에 관한 질문지를 재작성하여 사용한 백경애(1997)의 척도를 참고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부모영역, 가정환경영역, 친구영역, 학업영역, 교사 및 학교 영역의 5개 하위영역을 측정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손유형(편부, 편모, 조부모)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검증에서는 학업자아는 조부모가정 아동(M=3.82)이 편모가정 아동(M=3.39), 편부가정 아동(M=3.34)보다 높게 나타났다.(F=3.49, $p<.05$)

결손유형(편부, 편모, 조부모)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 검증에서는 하위영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모영역, 가정영역, 교사 및 학교영역에서 조부모가정 아동들이 다른 가족형태보다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부모 가정에서는 아동의 학교생활을 하면서 부모의 부재로 인한 외부의 편견이나 사회적 통념으로 외부의 다양한 자극에 영향을 받아 스트레스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결손이유(별거·이혼, 사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검증에서는 가정자아는 결손 이유 중 사별(M=4.11)이 별거·이혼(M=3.78)보다 높게 나타났

다.($t=-3.31, p<.01$) 일반자아, 사회자아, 학업자아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사별이 별거·이혼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다. 이는 결손의 중요한 이유인 이혼·별거가 사망일 때 보다 더 결손자정 아동의 정서·행동 등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손이유(별거·이혼, 사별)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 검증에서는 각 하위영역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것은 결손이유의 원인인 사별, 별거나 이혼 등의 스트레스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손가정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검증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 형성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손가정아동의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 검증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결손가정아동의 형제수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검증에서는 가정자아존중감은 형제수가 2명($M=4.11$)인 경우가 3명($M=3.74$), 1명($M=3.73$)보다 높게 나타났다.($F=9.42, p<.01$)

결손가정아동의 형제수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 검증에서는 가정영역 스트레스는 형제수가 1명($M=2.08$)인 경우가 3명($M=1.87$), 2명($M=1.74$)보다 높게 나타났고($F=3.91, p<.05$), 친구영역스트레스는 형제수가 1명($M=1.94$)인 경우가 3명($M=1.68$), 2명($M=1.54$)보다 높게 나타났고($F=4.08, p<.01$), 교사 및 학교영역 스트레스는 형제수가 1명($M=1.98$)인 경우가 3명($M=1.78$), 1명($M=1.66$)보다 높게 나타났다.($F=3.97, p<.05$) 이와 같이 형제수가 2명인 경우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낮음을 보여준다.

결혼유형별로 편부가정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보면, 일반자아와 가정자아 학업자아에서 상관계수가 높게 나와 아동들의 자아 형성이 가정자아와 학업자아가 일반자아에 관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자아는 자아존중감에서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스트레스의 영역별로는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자아에서는 자아존중감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스트레스 영역별로는 가정영역과 교사 및 학교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정자아가 높으면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아동이 자아를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영역별로는 영역 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부모 영역에서는 가정환경영역에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환경 영역에서는 교사 및 학교영역과 친구영역과 학업영역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교에서 가장 관계가 많은 교사와 친구에 대한 스트레스는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에서 일반자아와 사회자아($r=.56, p<.01$), 가정자아($r=.79, p<.01$), 학업자아($r=.74, p<.01$)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일반자아 존중감이 높으면 사회자아존중감도 높고 가정적,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도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결혼유형별로 편모가정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보면, 일반자아와 학업자아에서 상관계수가 높게 나와 아동들의 자아 형성이 학업자아가 일반자아에 관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자아와 스트레스의 영역별로 친구영역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자아는 편부가정의 아동과 마찬가지로 자아 존중감에서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스트레스의 영역별로는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자아에서는 자아존중감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스트레스 영역별로는 가정환경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영역별로는 영역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교사 및 학교영역과 다른 스트레스요인 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데 학업영역과 교사 및 학교 영역 간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변인끼리 서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학업스트레스와 교사 및 학교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r=.75, p<.01$), 이것은 학교에서 가장 관계가 많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조부모가정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보면, 학업영역 스트레스는 가정자아 존중감($r=-.73, p<.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같이 조부모 가정아동은 전체적으로 변수 간 상관관계가 편부와 편모의 가정에 비해 통계적으로 차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자아에서는 학업자아에서만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고, 스트레스 영역과는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자아에서는 자아존중감에서 학업자아 상관관계가 있고, 스트레스 영역별로는 학업영역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영역별로는 영역 간 상관관계는 학업영역과 친구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관관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학교에서 가장 관계가 많은 친구에 대한 스트레스는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학업자아 존중감에서 일반자아와 가정자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학업자아가 높으면 일반자아존중감이 높고, 가정자아 부분에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도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결손이유 중 별거, 이혼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인간에는 상관관계가 높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반자아와 학업자아, 사회자아에서 상관관계가 높아 결손가정의 부모가 별거나, 이혼에 의한 경우의 자아존중감에는 일반자아의 경우 학업과 사회자아가 관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하위영역에서는 교사 및 학교와 친구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r=.75, p<.01$), 이것은 아동들이 친구와 스트레스가 교사 및 학교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영역별로는 대체로 스트레스 영역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부모영역과 교사 및 학교영역의 변수가 상관관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결손이유 중 사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 존중감 변인간에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고, 스트레스 영역별로는 부모영역, 친구영역, 가정환경영역에서 자아 존중감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아 존중감에서는 가정자아와 학업자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영역별로는 대체로 스트레스 영역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가정환경 영역과 교사 및 학교 영역이 변수가 스트레스 영역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손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검증에서 학업자아에서 조부모와 살고 있는 아동이 가장 높다. 스트레스 하위영역에서는 부모, 가정, 교사 및 학교영역에서 조부모가정 아동들이 스트레스가 높다. 조부모 가정은 부모의 결손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동 양육에 세심한 배려를 해줌으로써 아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서 오는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아동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부모의 결손으로 인한 외부환경의 다양한 자극에 영향을 받아 아동들의 스트레스가 높다.

둘째, 결손이유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사별이 별거·이혼보다 높다. 별거나 이혼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간의 불화와 별거나 이혼 후 생활 장면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아동에게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결손가정 아동의 형제수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형제수가 2명인 경우가 가장 높다. 스트레스는 가정영역, 친구영역, 교사 및 학교영역에서 형제수가 2명인 경우가 가장 낮다.

넷째, 결손유형에 따른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차이검증에서는 편부가정 아동이 일반자아와 가정자아 학업자아에서 상관계수가 높게 나와 아동들의 자아 형성이 가정자아와 학업자아가 일반자아에 관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부모영역에서 가정환

경영역이 상관성이 높고 가정환경영역에서는 교사 및 학교 영역과 친구영역과 학업영역에서 상관 관계가 높다.

이상과 같이 현대사회는 사고, 질병, 이혼 및 별거 등과 같은 가족해체 증가로 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손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결손가정이 된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손 원인에 따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결손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회복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결손가정의 환경에 따라 알맞은 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학교 모두가 공동체 의식과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할 몫이며, 또한 결손가정 양육자를 위한 부모 교육프로그램이 정부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3. 제언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론을 중심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차이를 조사하여 연구를 일반화하고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결손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좀더 의미있고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설문지 조사와 함께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설문 대상자의 실태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결과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취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 교사, 아동의 삼각법에 위한 설문지를 실시하여 보다 의미있는 연구를 얻을 수 있도록 시도하여야겠다.

셋째, 본 연구대상이 결손가정 아동에 한정되었는데 결손가정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넷째, 결손가정아동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성별, 유형별 그리고 결손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하여 교육현장에서 상담활동에 적용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결손 가정아동의 생활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두원(1989). 가정환경 학업성취와 심리적 스트레스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 강해구(1987). 결손가정 고교생과 정상가정 고교생의 가족 및 자아에 대한 개념 비교. 석사학위, 논문교육대학원.
- 권영미(1999).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중앙대학교 대학원.
- 권희진(2003). 결손가정 유형에 따른 아동들의 성격특성 비교. 석사학위 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 김광률(1987). 결손가정의 돌봄. 서울:장로회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연구원, 교육교회 4월호.
- 김남숙(1993).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소연(2002). 편부, 편모 가정환경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화(2000). 비만아동과 표준체중아동의 신체상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김지영(2002). 결손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 김태준(1992). 정상가정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의 결손 유형에 따른 성격 특성, 적응요인 및 일탈행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호연(1995). **결손가정과 정상가정 자녀의 성격특성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김희화(1998).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발달: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박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박경금(1996). **이혼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사회사업 개입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박명숙(1996). **결손가정아동의 정서교육에 관한 고찰 : 이혼가정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인문과학논집2** pp.228-310.
- 박정옥(2002).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 변화순 외 공저(2001). **가족 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석지혜(1997). **중년기 여성의 스트레스 생활사건 및 자아개념과 우울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송양숙(2001). **결손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 양식 분석**.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병환(1991). **스트레스의 개념**. 한양대학교 정신건강 연구소, **정신건강 연구**.
- 이광희(1998). **결손가정 학생과 정상가정 학생의 자아개념 및 성격특성 비교연구**.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소희, 최덕경, 강지정, 김훈 공저(2003).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도서출판 양지.
- 이은경(2003). **결손가정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오가실(1985). **스트레스와 적응이론**. 월간간호 Vo 9, No2, 52-58.

- 오민숙(2004).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규혁(1984). **학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 임영식외(2000). **청소년 심리의 이해**. 학문사.
- 양영순(1994). **결손가정 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및 성격특성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유안진, 한미현(1995). **한국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제33권 제4호.
- 윤선자(2003).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윤수일(1998).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불안 및 학업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장병림(1984). **아동심리학**. 서울 법문사.
- 정원식 이상노 이성진(1996). **현대교육심리학**. 교육출판사143-177.
- 정원식(1988). **인간과 교육** 교육출판사.
- 조윤주(2002).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원과 자아존중감**.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조용문(1985). **가정환경과 자아개념과의 관계(결손가정 중심으로)**. 계석사학위 논문, 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흥식외(2000). **여성복지학**.
- 최희웅(1977). **결손가정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미라(1996).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학교생활 부적응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허혜경, 김혜수(2002). *청년발달심리학*. 서울:학지사.
- 황경희(2000). *결손가정 아동을 위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계
석사학위 논문, 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Lazarus. R S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linger Publishing press.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tion
University press.
- Selye, H(1984) *The stress of life revised edition* New York
McGraw-Hall, Inc



<Abstract>

**The Impacts of Broken Families on the Self-Esteem
and Stress of Children**

Song, Mi-Young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Supervised by Professor Hur, Chul-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children from broken families were affected by their family type, gender and academic school year in terms of self-esteem and stress in an effort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m. It's additionally meant to lay the foundation for providing successful guidance and counseling for them to be guided into the right direction without growing into delinquents.

The research questions were posed as follows:

1. What differences do the types of broken family(motherless family,

fatherless family and grandparents-only family) make to the self-esteem and stress of children?

2. What differences do the cause of family disorganization(separate living, divorce and separation by death) make to the self-esteem and stress of children?

3. What differences do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from broken families make to their self-esteem and stress?

4. What is the correlation of self-esteem to stress among children from broken familie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children who were selected by random sampling from among 172 upper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in Jeju. They were brought up by single parents or grandparents,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m.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self-esteem questionnaire, stress scale and questionnaire about personal background including personal characteristics, types of broken family and cause of family disorganization.

To evaluate the self-esteem of the students, Yun Su-il(1998)'s revised questionnaire for Korean school children was employed, which covered four subareas including general self, social self, home self and academic self. To assess their stress, Baek Gyeong-ae(1997)'s Scale was revised, which was based on Han Mi-hyeon and Yu

An-jin(1995)'s Child Stress Questionnaire and dealt with children's perception of their own daily stress. This scale included five subareas including parents, family environments, friends, studies and teacher/school.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PC WIN program. To figure ou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tatistical data on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obtained, and t-test or ANOVA were utilized to see if their personal variable made any differences to their stress and self-esteem at the $p < .01$ and $p < .05$ level of significance. And in order to track the correlation of family type and cause of family disorganization to their stress and self-esteem, correlation analysis was implemented.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oncerning connections between the types of broken family and self-esteem, the academic self of the students investigated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s of broken family. The collective average of the children raised by grandparents(3.82)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children from fatherless families (3.39) and from motherless families(3.34). As to stress, the children reared by grand parents were more stressed about their parents, families, teachers and school. Those children had high self-esteem as their grandparents paid careful attention to them and spared no pains to

stand by them on behalf of their parents, but school life put a heavier strain on them because the lack of parents had them exposed to diverse stimuli at school.

Second, regarding relations between the cause of family disorganization and self-esteem, the children whose parents were separated by death were better at self-esteem than the others whose parents lived separately or were divorced. The self-esteem of the latter groups was under the influence of the discord between their parents and of their own ensuing experiences.

Third, as for relations between the number of siblings and self-esteem, the children who had two siblings had the best self-esteem, and those children also suffered the least stress about families, friends, teachers and school.

As the environments of broken families had a similar adverse impact on the self-esteem and stress of children, single parents should try to bring up their children in a manner to boost their self-esteem, and their relatives and society also should keep offering a helping hand to improve their inadequate socioeconomic environments. And sustained research efforts should be put into exactly identifying in which situation children from broken families are placed in order to get a more precise understanding of them.

부 록

<부록 1> 질문지	65
<부록 2> 자아존중감 척도 검사지	66
<부록3> 스트레스 척도 검사지	68



<부록1> 질문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질문지는 앞으로 여러분이 보다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여러분 각자가 평소에 여러분의 생활과 주변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답을 하나만 골라 V표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도 알 수 없으며, 오직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연구에 큰 도움이 되오니 한문항도 빠짐없이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송미영

1. 몇 학년입니까?

- ① 4학년 ② 5학년 ③ 6학년

2. 성별은?

- ① 남 ② 여

3. 지금같이 살고 있는 가족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삼촌이나 고모 또는 이모 ⑥ 동생이나 형

4. 위 3번 문항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이 멀리 있어서 ②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이혼, 별거)
③ 돌아가셨기 때문 ④ 기타()

5. 위 3번 문항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이 멀리 있어서 ②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이혼, 별거)
③ 돌아가셨기 때문 ④ 기타()

6. 나의 형제는 _명이고, 나는 그중에 _째이다

<부록2> 자아존중감 척도 검사지

자아존중감 설문지

이 검사는 평소 가정, 학교,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나 남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 해주세요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하고 싶은 일은 모두 잘할 수 있다.					
2. 나의 얼굴 모습이 싫을 때가 있다.					
3. 나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					
4. 부모님(엄마, 아빠, 조부모)은 나에게 야단만 치신다.					
5. 나는 어떤 일을 어려움 없이 쉽게 스스로 결정한다.					
6.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옳다.					
7. 나는 새로운 것을 익히는데 친구들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8.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할 때가 있다.					
9. 나는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10. 내가 할 일은 남의 도움 없이 나 혼자서 해결한다.					
11. 부모님(엄마, 아빠, 조부모)은 내가 맡은 일을 잘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신다.					
12. 부모님(엄마, 아빠, 조부모)은 나를 낙오자(뒤떨어지는 사람)로 생각하신다.					
13. 나는 학교 공부시간이 즐겁다.					
14. 나는 내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15. 나는 얼굴이 잘 생겼다고 생각한다.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서슴치 않고 말한다.					
17. 나에게는 잘 되는 일이 없다.					
18. 우리 반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19. 나는 공부시간에 선생님께서 발표 기회를 얻으면 기분이 좋다.					
20. 나는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21. 나는 학교에서 낙오자(뒤떨어진 사람)이다.					
22. 나와 함께 노는 것을 학급 친구들은 좋아한다.					
23.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보다 더 인기가 있다.					
24. 나는 친구가 많다.					
25. 나는 학급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낸다.					
26. 우리 반 친구들은 나를 착하다고 생각한다.					
27. 나는 부모님(엄마, 아빠, 조부모)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28. 나의 부모님(엄마, 아빠, 조부모)은 나의 기분을 잘 맞춰 주신다.					
29.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열심히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30. 집에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31.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부록3> 스트레스 척도 검사지

스트레스 설문지

다음은 가정이나 학교, 또는 친구와의 관계 등에서 여러분이 겪는 스트레스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란 어떤 상황 또는 일로 인해 느끼게 되는 불안이나 긴장, 짜증, 부담감 등을 말합니다.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현재 또는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서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잘 맞는 번호에 표해 주세요.

설문내용	스트레스를			
	전혀받지 않는다.	별로받지 않는다.	약간 받는다.	많이 받는다.
1. 부모님(엄마, 아빠, 조부모)이 늘 공부하라고 말씀하셔서				
2. 부모님(엄마, 아빠, 조부모)이 내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아서				
3. 부모님(엄마, 아빠, 조부모)이 나에게 시키는 일이 많아 피곤해서				
4. 부모님(엄마, 아빠, 조부모)이 나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참견하여 짜증이 나서				
5. 부모님(엄마, 아빠, 조부모)이 내 학업 성적에 너무 신경을 쓰셔서				
6. 부모님(엄마, 아빠, 조부모)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7. 부모님(엄마, 아빠, 조부모)이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잘 사주지 않아서				
8. 부모님이 내게 거는 기대와 요구가 너무 커서				
9. 우리 가족이 화목하지 못해서 속상해서				
10.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11. 우리 집이 가난해서				
12. 필요한 물건들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서				
13. 집이 너무 좁아서				
14. 우리 집의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15. 부모님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설 문 내 용	스트레스를			
	전혀받지 않는다.	별로받지 않는다.	약간 받는다.	많이 받는다.
16.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는 것 같아서				
17.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18.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19.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보다 딴 아이를 더 좋아해서				
20. 친구들과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21. 친구들이 나를 놀려서				
22. 내 마음에 맞는 친구가 없어서				
23. 학업성적 때문에				
24. 시험을 잘 못 보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25.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과외활동이 너무 많아서				
26. 노력해도 기대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27. 해야 할 공부가 너무 많아서				
28. 선생님이 몇몇 아이들만을 편애하는 것 같아서				
29.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30. 숙제가 많아서				
31. 학교에서 나보다 힘센 친구들이 괴롭혀서				
32.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주곤 해서				
33. 교실이나 화장실 등 학교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34. 내가 장차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어서				
35. 나는 대학에 못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서				